

격리 면제에 “한국 찾겠다” 문의 폭주

미주지역 재외공관 비상

LA 총영사관 “하루 5천 통”

한인사회 “발급 대란 우려”

한국행 비행기 예약 늘어

정부가 다음 달부터 국외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 미주지역 재외공관에 비상이 걸렸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주재 재외공관과 한인사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정해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뒤 현지 동포들의 문의가 각 영사관에 폭주하고 있다.

지난 13일 한국 정부는 미국 등지에서 백신을 맞은 내외국인이 직계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을 경우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입국 관리체계 개

편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방침이 나오자 미주 각 공관에는 14일부터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오랫동안 한국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동포와 유학생들이 백신을 맞았다면 격리를 안 해도 된다는 소식에 너도나도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미주 최대의 한인 거주지 남부 캘리포니아를 관할하는 LA 총영사관에는 하루에 5천 통이 넘는 전화가 폭주하며 사실상 업무가 마비됐다.

재외공관들은 일제히 홈페이지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문을 띄우면서 “통화량이 폭주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다”, “신청자가 폭주하면 물리적으로 발급이 어렵다. 더 천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안전하다”는 유의사항까지 공지했다.

LA 주재 국적 항공사들에 따르면 한국행 비행기 문의 전화도 늘었다. 한 관계자는 “7월 항공권 예약이 3~4배는 증가한 것 같다”고 전했다.

비상이 걸린 일부 영사관은 민원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접수 절차 간소화 대책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업무 폭주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 남부를 비롯해 애리조나, 네바다, 뉴멕시코주까지 관할하는데 이들 지역 한인 동포는 67만명에 달한다. 뉴욕 총영사관도 격리면제서 발급 서비스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이메일로 격리 면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격리 면제서 발급 수요와 영사관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제도 시행 초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동포 사회에서 나왔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영사관을 방문하려는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란이 일어날까 걱정된다”며 “한국 정부가 현지 사정을 고려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주지역 재외공관들도 홈페이지 안내문에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과 관련해 정부의 세부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알렸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우파 수천 명이 15일(현지시간)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다마스쿠스 게이트에서 ‘깃발 행진’을 벌이는 동안 경찰이 한 여성이 들고 있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빼앗고 있다. 이스라엘 우파는 이날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의 반발에도 깃발 행진을 강행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 행사는 이스라엘 우파 입장에서는 축제지만, 동예루살렘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권은 치욕이자 도발로 여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휴전 한달만에 가자지구 공습…“폭탄풍선 대응”

“전투재개 등 모든 경우 대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 약 한 달만에 가자지구를 다시 공습했다. 이스라엘에 새 정권이 들어서고 첫 가자지구 공습이었다.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은 1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가자시티와 칸유니스의 하마스 군시설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쪽

으로 폭발물을 던 풍선이 날아온 일에 대응해 공습을 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폭탄풍선 때문에 가자지구 접경 마을들에 2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폭탄풍선은 이스라엘 우익단체가 ‘깃발행진’을 벌인 직후 등장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행진하는 이 행사는 동예루살렘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이나 아랍권 입장에서는 치욕이자 도발이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내고 “가자지구로부터 테

러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투 재개를 비롯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했다”라고 밝혔다.

하마스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용감하게 저항하며 신성한 땅과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습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난달 21일 휴전하고 26일만에 벌어졌다. 지난달 11일간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이스라엘 쪽에선 13명이 사망했고 팔레스타인 쪽에선 260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방역 모범’ 대만 어찌다가…원정 접종 잇따라

코로나 확산에 미국행 줄이어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었던 대만에서 코로나 지역 감염이 검압을 수 없이 확산하자 미국 등지로 원정 접종에 나서는 대만인들의 출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로 접종 순서와 대상자 선정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대만인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

16일 연합뉴스 등은 대만 교통부의 최신 통계를 인용해 이달 7~13일 기간 동안 하루 평균 686명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31일 평균 361명에 비해 90% 이상이 늘어난 수치로 대만의 양대 항공사인 중화항공과 에바항공이 미국행 항공편을 계속 증편하는 상황이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여행업계에서는 미국에서의 코로나 백신 접

을 위한 여행단 모집 추진 외에도 미국행 항공권과 숙소 예약 대행은 물론 현지 중국어 가이드를 통해 백신 접종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백신 접종을 위해 미국행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항공권 예약률도 지난 4월에 비해 무려 2.5배나 늘었다”면서 “10인승 이상 소형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는 미국행 문의도 40~50%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이코노미 항공권의 경우 5월 초 3만9000 대만달러에서 6월 초부터 7만 대만달러(283만원) 이상으로 치솟았고, 비즈니스 항공권의 경우 30만 대만달러(1213만원) 이상이라고 전했다.

북부 타이완의 국제공항 측은 지난주부터 미국, 캐나다, 중국 상하이로 가는 여행객이 많이 늘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엔, 로힝야 난민 개인정보 미얀마에 넘겨

방글라데시 정부 통해 건너가

유엔난민기구가 로힝야족 난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에 제공해 결국 미얀마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로힝야족 난민 8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에 제공해 더 큰 위험에 노출했다”고 전날 성명을 냈다.

로힝야족 70여만 명은 2017년 8월 말 미얀마 라카인주(라)에서 미얀마군에 쫓겨 방글라데시 국경을 넘어 현지 난민촌에 모여 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 수천 명을 살해했다. 콕스바자르 등 방글라데시 난민촌의 로힝야족은 100만명 안팎으로 늘었다.

유엔난민기구는 로힝야족 난민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켜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필수 구호품과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신분증을 발급받도록 했

다. 문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렇게 수집한 난민들의 사진, 지문, 개인정보를 미얀마 정부와 송환 혐의에 사용했다는 점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밝혔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소 83만명의 로힝야족 난민 이들과 개인정보를 미얀마 정부에 넘겨 송환 적격성 평가를 받았고, 미얀마 정부는 4만2000명의 귀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콕스바자르 난민촌의 로힝야족 난민 24명을 상대로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개인정보를 등록한 상황에 대해 인터뷰했다. 24명 가운데 23명은 “원조를 받기 위해 신분증(스마트 카드)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유엔난민기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을 뿐, 내 정보를 미얀마에 넘기거나 송환 자격 평가에 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나머지 1명은 “정보제공 서류에 ‘미얀마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이 영어로 적혀 있어서 ‘네’라고 체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독일 레겐스부르크 소년합창단, 소녀에 개방

1천년만에…소녀합창단 별도 운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합창단 중 하나인 독일의 레겐스부르크 돔슈파첸 소년 합창단이 창단 1천여 년 만에 소녀에게도 문을 열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AFP, AP 통신에 따르면 레겐스부르크 돔슈파첸 소년 합창단을 운영하는 가톨릭 학교는 2022~2023학년도부터 소녀 신입 단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바이에른주 레겐스부르크에서 975년 창단된 레겐스부르크 돔슈파첸 합창단은 그동안 소년 합창단원만으로 운영돼 왔다.

다만 새 소녀 단원들은 기존 소년 합창단과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소녀 합창단 소속이 된다. 새 합창단의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 소녀 단원들은 합창단을 위해 세워진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합창단 측은 새 소녀 단원

들이 기존 소년 단원들과 같은 혜택을 받고, “그들만의 소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년 합창단은 기존 정체성을 유지해나간다.

합창단이 소속된 학교의 학생은 현재 431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가 엄격한 규율로 정평이 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 레겐스부르크 돔슈파첸 합창단은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 등 전 세계에서 공연하며 명성을 쌓아왔다.

그러나 이 합창단은 1945년부터